

2023년 동남권 경제전망

이글 책임연구원(glee@bnkfg.com)
백충기 연구위원(cgbaek@bnkfg.com)

2023년 동남권 경제는 전국보다 낮은 1.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1%대의 미약한 성장에 그치면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은 지연될 전망이다. 소비심리 위축, 투자 감소 및 수출 둔화, 부동산경기 하락 등이 성장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조업은 자동차가 완만한 성장에 그치고 석유화학, 기계, 철강 등 대부분의 주력 산업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성장세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조선은 생산 증가세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업 개선도 어려울 전망이다. 역자산 효과 우려, 소비심리 악화, 이자부담 확대에 따른 민간소비 둔화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외 이동 및 여행 수요 증가 등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업은 정부 주택공급 계획, 수주물량 착공, 자재수급 안정화 등으로 소폭 성장이 예상된다. 다만 금리상승에 따른 건설투자 부진 및 기업 자금조달 애로, SOC 예산 감소 등이 반등속도를 제약하면서 미약한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경제, 성장세 약화될 전망

2023년 세계경제는 올해보다 낮은 2.7%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주요국 통화 긴축, G2 경제 부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성장의 하방 압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의 경우 1.1% 성장에 그치며 금년(2.4%) 수준을 하회하겠으며 신흥국은 올해와 동일한 3.7%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고금리, 고물가 지속¹⁾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과 투자 감소 등으로 성장률이 1%를 넘어서기 어려울 전망이다²⁾. 유로는 실질소득 감소, 에너지 공급 차질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일본은 소비 부진 등으로 미약한 성장이 예상된다.

중국은 적극적 방역정책,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4%대 중반 수준의 성장에 그치고 브라질은 재정적자 누적, 소비 위축³⁾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한편 인도는 해외자본유입 증가⁴⁾ 등에 힘입어 6%대의 견조한 성장률을 시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3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

국가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세계	2.8	-3.1	6.0	3.2	2.7
선진국	1.7	-4.5	5.2	2.4	1.1
(미국)	2.2	-3.4	5.7	1.6	1.0
(유로)	1.3	-6.3	5.2	3.1	0.5
(일본)	0.7	-4.6	1.7	1.7	1.6
신흥국	3.7	-2.1	6.6	3.7	3.7
(중국)	6.1	2.3	8.1	3.2	4.4
(인도)	4.2	-7.3	8.7	6.8	6.1
(브라질)	1.1	-4.1	4.6	2.8	1.0

자료 : IMF

1) 미국의 기준금리는 2023년 상반기중 4.5~5.0%까지 상승하며 정점을 기록한 이후 일정 기간 유지될 전망이며, 물가상승률은 금년보다 낮아지겠으나 미연준의 물가목표(2%)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

2) 주요기관별 2023년 미국경제 성장률 전망(%) : IMF(1.0), OECD(0.5), Fitch(0.5), S&P(0.2)

3) 브라질 기준금리는 2021.2월 2.0%에서 2022.8월 13.75%까지 인상되면서 민간소비 위축 요인으로 작용

4) 인도는 2014년 모디 정부 수립 이후 21개 산업분야에 대해 87개 FDI 규정을 완화하는 등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 중. 회계연도 상반기(4~9월)중 FDI 금액은 2014년 215.1억달러에서 2022년 391.0억달러까지 늘어나는 등 해외자본 유입 증가세는 계속해서 확대되는 모습

국내경제 성장률, 1%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

2023년 국내경제는 1%대 성장이 전망된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 시기인 2009년(0.8%)과 2020년(-0.7%)를 제외하면 2000년대 이후 최저 성장률에 해당한다.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둔화 및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소비위축이 경기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민간소비는 금년보다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상재개의 긍정적 영향으로 회복세는 이어지겠으나 높은 물가수준 지속, 금리상승 기조, 자산시장 부진 등이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⁵⁾.

설비투자는 글로벌 제조업 경기 둔화, 금리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우려 등으로 투자심리가 약화되며 올해보다 감소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투자의 경우에도 주택경기가 둔화되고 정부 SOC 예산⁶⁾이 줄어들면서 마이너스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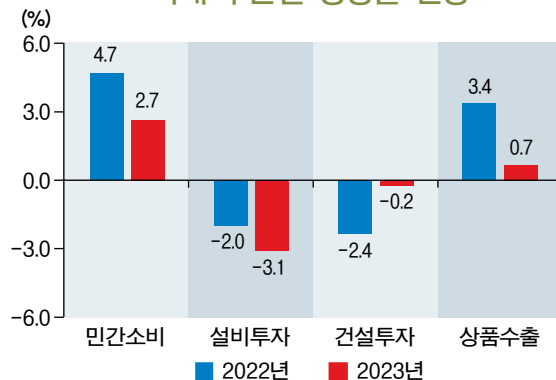
수출은 중국, 미국, 유럽 등 주요 대상국의 동반 수요 둔화와 반도체 등 주력산업 부진으로 올해보다 증가세가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2023년 하반기 이후로는 중국 제로코로나 정책 완화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

전망기관	2022년	2023년
한국은행(2022.11)	2.6	1.7
한국금융연구원(2022.11)	2.6	1.7
OECD(2022.11)	2.7	1.8
IMF (2022.10)	2.6	2.0

주 : ()내는 전망 시기
자료 : 각 기관

국내 부문별 성장률 전망



자료 : 한국은행

5) 2022년 국내 민간소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분기별)
· 4.3(2022.1Q) → 3.9(2022.2Q) → 5.9(2022.3Q)

6) 정부 SOC 예산은 2022년 28조원에서 2023년 25.1조원으로 줄어들 전망. 교통 및 물류에서는 철도·도시철도 부문(8.6조원 → 7.8조원), 지역개발에서는 지역 및 도시 부문(3.0조원 → 2.3조원)이 가장 크게 감소

동남권 경제성장률, 전국보다 낮은 1.6%로 전망

2023년 동남권 경제는 전국 수준을 소폭 하회하는 1.6%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1%대의 미약한 성장에 그치면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심리 위축, 투자 감소 및 수출 둔화, 부동산경기 하락 등이 성장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조업은 성장세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가 완만한 성장에 그치는 가운데 석유화학, 기계, 철강 등 대부분의 주력산업이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다만 조선이 생산 증가세를 확대하면서 지역 제조업 부진 폭을 축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비스업 개선도 어려울 전망이다. 역자산 효과 우려, 소비심리 약화, 이자부담 확대에 따른 민간소비 둔화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외 이동 및 여행 수요 증가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업은 정부 주택공급 계획⁷⁾, 자재수급 안정화 등으로 소폭 성장이 예상된다. 다만 금리상승에 따른 건설투자 부진 및 기업 자금조달 애로, SOC 예산 감소 등이 반등속도를 제약하면서 미약한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2023년 동남권 경제성장률 전망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동남권	1.5	1.8	1.1	0.0	0.2	1.9	-5.2	3.1	1.8	1.6
전 국	3.2	2.8	2.9	3.2	2.9	2.2	-0.7	4.1	2.6	1.7

주 : 1) 동남권 경제성장률은 BNK경제연구원 추정치(2021, 2022년) 및 전망치(2023년)

2) 전국은 한국은행 추정치(2022년) 및 전망치(2023년)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BNK경제연구원

7) 정부는 향후 5년(2023~27년)간 비수도권 광역·자치시에 52만호, 8개도에 6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최근 발표

8) 동남권 건설수주액(조원, 각년도 1~10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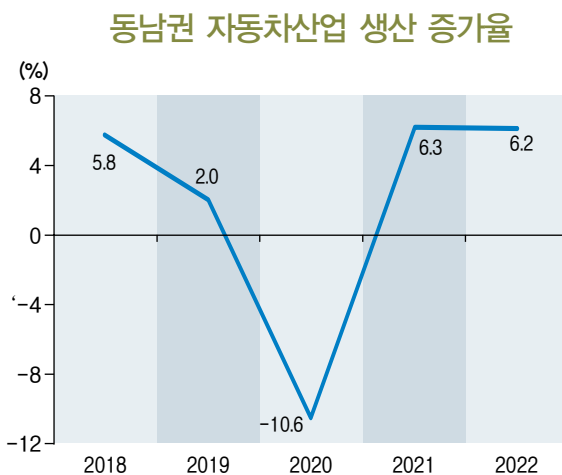
· 14.6(2018년) → 11.1(2019년) → 18.7(2020년) → 16.4(2021년) → 25.6(2022년)

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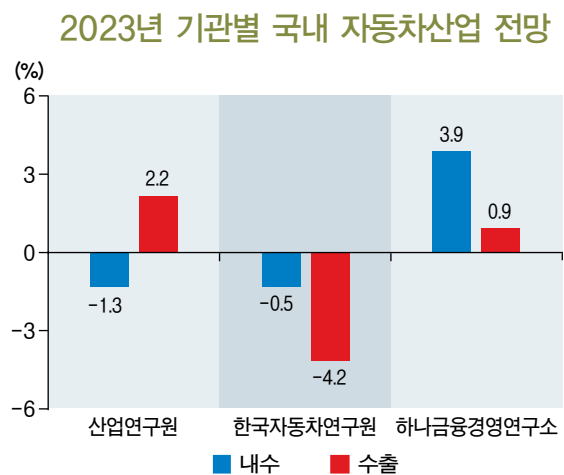
동남권 자동차 산업은 금년 1~10월중 전년동기대비 6.2%의 생산 증가율을 시현하는 등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다⁹⁾. 상반기에는 미약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하반기 이후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 차질 완화에 따른 내수 증가, 친환경차 및 SUV 중심의 수출 확대 등으로 호조세를 보인데 기인한다¹⁰⁾.

2023년 동남권 자동차 산업은 내수는 개선되겠으나 수출이 감소하면서 미약한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¹¹⁾. 수출의 경우 미국, 유럽 등 주요국 수요 위축, 미국 IRA 불확실성 및 보호무역주의 정책 강화 등으로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전기차 등 친환경차 수요 호조세가 지속되며 부진 품을 축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수는 2022년 공급차질에 따른 누적된 대기물량(Back order), 부품 공급난 완화, 기저효과 등이 개선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금리인상으로 인한 구매력 감소, 차량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 확대 등으로 성장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 :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2022년은 1~10월 기준
자료 : 통계청



주 : 1) 전년대비 증가율
2) 물량 기준
자료 : 각 기관

9) 동남권 자동차 상장기업 13개사중 9개사의 2022년 1~3Q 기준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증가하거나 적자폭이 축소되는 등 업계 수익성도 양호한 모습을 시현

10) 2022년 전국 및 동남권 자동차 산업 반기별 생산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하반기는 1~10월 기준)
· 전국 : 0.4(2022.1H) → 21.3(2022.2H) · 동남권 : 1.4(2022.1H) → 13.9(2022.2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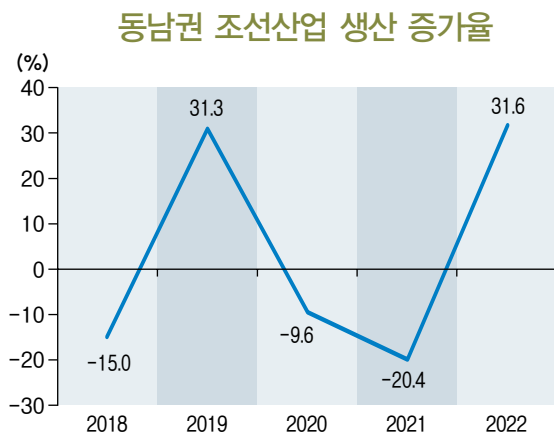
11) 미국 IRA 적용 여부, 반도체 공급 문제, 금리인상 수준, 대기수요 변동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 내년도 업황에 대한 주요 기관별 전망은 상이

조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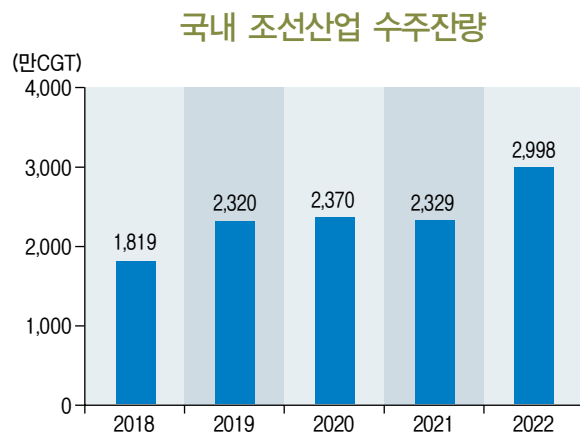
동남권 조선산업 생산은 금년 1~10월중 전년대비 31.6% 늘어나며 2019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됐다. 올해 국내 선박 수주량도 1,500만CGT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년(1,773만CGT)에 이어 호조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¹²⁾.

2023년 동남권 조선산업은 높은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생산의 경우 2021년 수주한 대형 컨테이너선, LNG선 등이 본격 건조되면서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주잔량이 금년 11월말 기준으로 2,998만CGT에 달하는 등 최소 3년 치 이상의 일감이 확보되어 있어 당분간 업황 호조세는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¹³⁾.

선박 수주의 경우 조선사가 충분한 수주잔량이 확보된 만큼 선별적 수주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해운시황 하락, 고금리, 컨테이너선 과잉발주 우려 등으로 올해보다 줄어든 전망이다. 한편 인력부족 심화, 러시아 발주선박 인도 지연 및 취소 가능성, 노사갈등 우려 등은 내년도 동남권 조선산업의 불안요인으로 지목된다.



주 :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2022년은 1~10월 기준
자료 : 통계청



주 : 2022년은 11월말 기준
자료 : Clarksons, 한국수출입은행

12) 세계 및 국내 선박 수주량(만CGT, 2022년은 1~11월 기준)

(세계) · 3,700(2018년) → 3,243(2019년) → 2,609(2020년) → 5,317(2021년) → 3,499(2022년)

(국내) · 1,356(2018년) → 1,009(2019년) → 892(2020년) → 1,773(2021년) → 1,465(2022년)

13) 국내 대형 조선3사의 수익성을 살펴보면 금년중에는 생산 반등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지속되었으나 내년에는 생산 반등세 확대, 후판가격 안정 등으로 흑자전환이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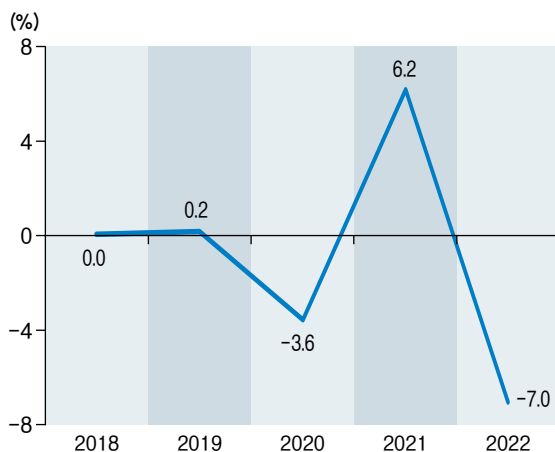
석유화학

동남권 석유화학산업 생산은 금년 1~10월중 전년동기대비 -7.0% 줄어들며 감소세로 전환했다. 글로벌 생산시설 증설에 따른 공급 확대, 최대수출국 중국의 자급률 제고¹⁴⁾, 고유가로 인한 원가부담 증가 등이 업황 부진의 요인으로 지목된다.

내년에는 부진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자급률이 높아진 상황에서 경기 둔화, 글로벌 소비심리 위축, 전방산업 부진¹⁵⁾ 등으로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에틸렌 스프레드 급감¹⁶⁾, 국내외 친환경 기조 강화에 따른 원가 부담 상승¹⁷⁾ 등으로 수익성도 악화될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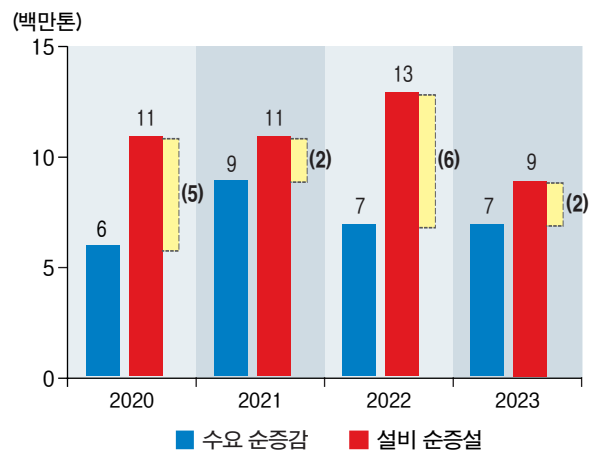
공급과잉 우려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22년중 에틸렌 생산능력은 생산설비의 집중적인 증설로 인해 3천 5백만톤 늘어났으나 같은기간 수요는 2천 2백만톤 증가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글로벌 에틸렌 설비 가동률은 2023년중 86.8%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동남권 석유화학산업 생산 증가율



주 :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2022년은 1~10월 기준
자료 : 통계청

에틸렌 설비 순증설 및 수요 순증감



주 : ()내는 초과공급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14) 중국은 2021년중 에틸렌(Ethylene)과 프로필렌(Propylene) 자급률 100%를 달성

15) 자동차, 전자, 고무플라스틱, 건설, 섬유 등 주요 전방산업의 내년도 업황은 부진할 전망

16) 에틸렌-납사 스프레드는 2022년 하반기중 톤당 400달러 이하를 기록하며 최근 5년중 최저수준을 기록

17) 일회용품 사용 금지 정책 확대는 플라스틱 등 주요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요를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탈탄소 기조 강화는 업계의 추가 설비투자 비용을 증가시켜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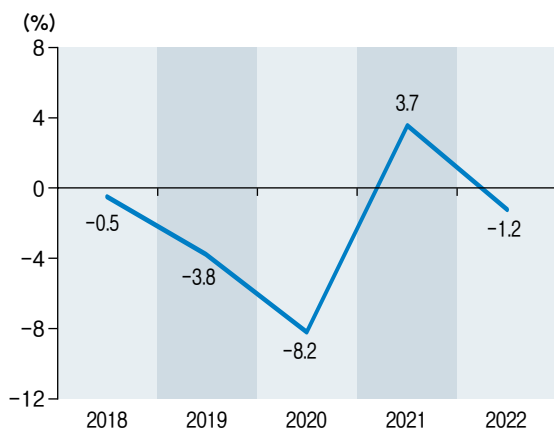
기 계

동남권 기계산업 생산은 금년 1~10월중 -1.2% 감소했다. 수출은 글로벌 경기가 하반기 이후 빠르게 둔화되며 소폭 증가했으나 내수가 건설 및 설비투자 둔화로 마이너스 성장한 데 기인한다. 기계산업 수주도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33.0% 증가했으나 올해는 제조업 부진에 따른 금속공작기계 감소, 건설기계 등 특수산업용기계 약세로 12.8%까지 낮아졌다¹⁸⁾.

2023년에도 동남권 기계산업은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의 경우 인도 등 일부 국가의 인프라 투자 확대에 의한 긍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주요국 경기 둔화에 따른 제조업 부진, 중국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인한 건설기계 수입수요 둔화 및 러-우 사태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올해보다 부진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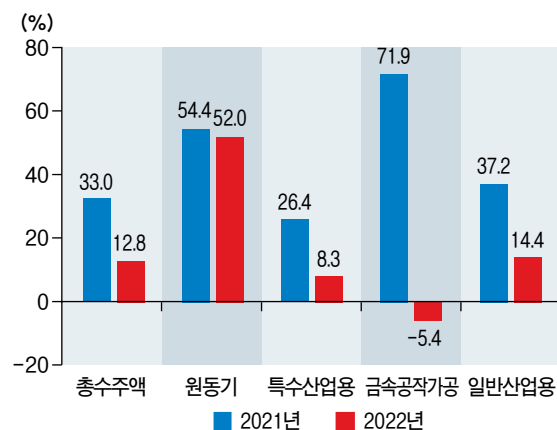
내수는 정부 주택공급 확대, 기저효과 등이 상방요인으로 지목되나 제조업 생산 부진에 따른 설비투자 감소, 부동산시장 약세에 따른 건설투자 위축 등이 부정적 영향을 크게 미치면서 올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남권 기계산업 생산 증가율



주 :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2022년은 1~10월 기준
자료 : 통계청

국내 기계산업 수주 증가율



주 :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2022년은 1~10월 기준
자료 : 통계청

18) 금속공작가공기계는 금속공작기계(압연기, 드릴링기, 머시닝센터, 수치제어식 선반 등), 금속가공기계(단조기, 액압프레스기 등)를 포함, 특수산업용기계는 농업용기계, 건설광산기계, 섬유용기계, 산업용로봇, 기타특수산업기계(반도체조립장비, 절단기, 목공기계, 권선기 등)를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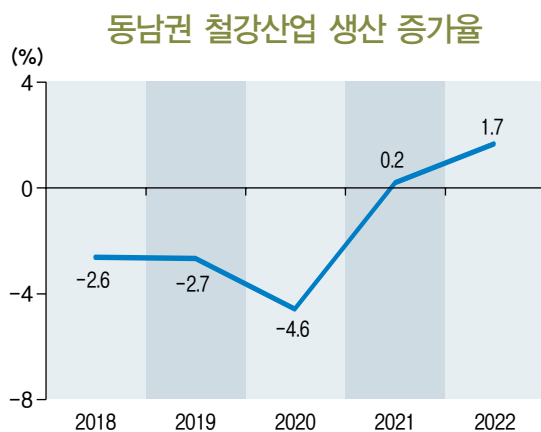
철 강

동남권 철강산업 생산은 금년 1~10월중 1.7% 늘어나며 지난해에 이어 완만한 증가세를 시현했다¹⁹⁾. 상반기중 중국 철강생산 축소²⁰⁾ 등의 영향으로 호조세를 보였으나 하반기에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 국내 주요기업 공급 차질 등으로 성장세가 약화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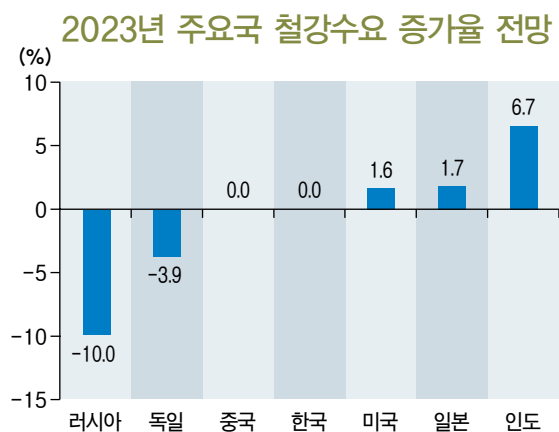
2023년에는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내수의 경우 조선업 반등에 따른 후판 생산 확대가 기대되나 건설투자 감소, 가전수요 위축, 미약한 자동차 생산 증가세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수출도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고금리·고환율이 주요국 산업활동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글로벌 철강수요 전망도 밝지 않다. 주요 철강 수요국은 인도를 제외하고는 내년도 수요 증가율이 1%대를 넘어서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친환경 인프라 투자 필요성 확대 등도 업계에 지속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탄소다배출 업종인 철강업계는 탄소감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철스크랩 수급불균형 심화, 탈탄소 전환비용 증가 등으로 원가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주 :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2022년은 1~10월 기준
자료 : 통계청



주 : 세계 7대 철강수요국 기준
자료 : World Steel Association

19) 전국의 경우 금년 1~10월중 철강산업 생산 증가율이 -5.2%를 기록. 이는 포항제철소 가동 중단 등으로 대경권이 큰 폭으로 감소(-14.3%)한 데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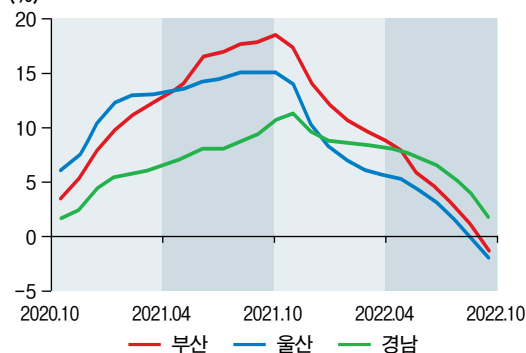
20) 탄소배출 감축 기조 강화,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중 환경보호 정책 추진 등으로 상반기중 철강 생산 축소. 2022년 상반기중 중국 조강 및 강재 생산량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6.5%, -4.6% 감소

[참고] 동남권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전망

최근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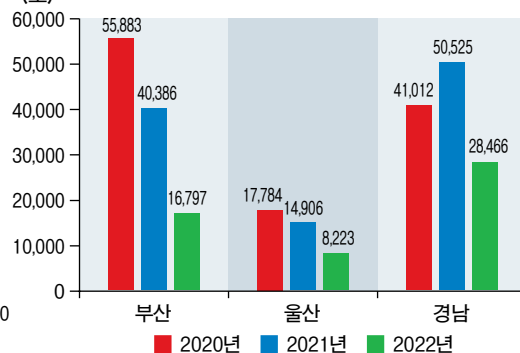
- 동남권 아파트매매가격은 마이너스 증가세로 전환
 - 2021년 3분기부터 동남권 전지역 상승률이 하락하면서 2022년 10월에는 부산 -1.3%, 울산 -2.0%, 경남 1.7%까지 낮아진 것으로 조사
 - 2022년 10월 기준 동남권 조사대상 33개 시군구 중 17개가 하락
→ 부산 강서구(-3.0%), 부산 해운대구(-2.9%), 부산 동래구(-2.8%) 등이 가장 큰 하락폭 기록
- 아파트매매거래량의 경우 부산, 울산, 경남 모두 큰 폭으로 감소
 - 부산이 1~10월중 전년동기대비 -58.4%로 가장 크게 감소했고 울산(-44.8%), 경남(-43.7%)도 감소

〈지역별 아파트매매가격 상승률〉



주 :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 한국부동산원

〈지역별 아파트매매 거래량〉



주 : 각년도 1~10월 누계 기준
자료 : 한국부동산원

향후 전망

- 고금리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 공급물량 증가 등으로 거래량 감소세가 지속되고 가격은 하락세로 전환될 전망
- 내년 동남권 아파트 공급 물량은 올해보다 15.6% 증가한 47,390호에 달할 것으로 보여 가격 하방압력을 높일 가능성

[지역별 입주 및 입주예정물량]

(호, %)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동남권	40,987	47,390	15.6
부 산	27,130	23,849	-12.1
울 산	3,856	8,786	127.9
경 남	10,001	14,755	47.5

자료 : 부동산114

[참고문헌]

산업연구원, “2023년 경제·산업 전망,” 2022.11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23년 일반 산업 전망,” 2022.10
 한국금융연구원, “2022년 금융동향과 2023년 전망,” 2022.11
 한국수출입은행, “해운조선업 2022년 3분기 동향 및 2023년 전망,” 2022.10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2.11
 한국자동차연구원, “2023년 자동차산업 전망,” 2022.11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2.10
 OECD, “OECD Economic Outlook,” 2022.9
 World Steel Association, “Short Range Outlook,” 2022.10
 부동산114, r114.com
 통계청, www.kosis.kr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한국부동산원, www.reb.or.kr
 Clarksons, www.clarksons.com

BNK경제인사이트 발간목록

2018

01	동남권 수출과 지역경제
02	동남권 자동차 부품산업 동향과 전망
03	동남권 부동산 시장 점검
04	동남권 서비스업 고용 변화
05	동남권 뿌리산업 현황 및 시사점
06	동남권 100대 기업 변화
07	동남권 기계산업 현황 및 전망
08	동남권 철강산업 현황 및 시사점
09	최근 10년간 지역금융시장 변화 분석
10	조선산업 동향 및 향후 전망
11	2019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키워드로 되돌아본 2018년 동남권 경제

2019

01	G2경제 진단 및 시사점
02	동남권 건설업 현황 및 시사점
03	동남권 자영업 현황 및 시사점
04	사물인터넷 산업현황과 동남권 발전과제
05	동남권 산업단지 현황 및 발전 방안
06	동남권 강소기업 특징 및 시사점
07	2019년 상반기 동남권 경제 리뷰
08	동남권의 일본 수출입 현황 및 시사점
09	동남권 소비동향 및 시사점
10	동남권의 아세안 교역 현황 및 발전과제
11	2020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키워드로 되돌아본 2019년 동남권 경제

2020

01	2020년 동남권 수출 여건 점검
02	동남권 관광산업 현황 및 시사점
03	동남권 주요 상권의 변화 분석
04	동남권 제조업 현황 진단
05	동남권 경공업 동향 및 시사점
06	동남권 고용구조 변화와 향후 과제

2020

07	2020년 상반기 동남권 경제 리뷰
08	뿌리산업 개편과 동남권 발전과제
09	동남권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전망
10	동남권 기계산업 동향 및 시사점
11	2021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키워드로 되돌아본 2020년 동남권 경제

2021

01	2021년 동남권 수출 전망
02	동남권 신공학과 지역경제의 미래
03	글로벌 해운시장 전망과 시사점
04	환경규제가 동남권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05	동남권 자동차산업 동향과 발전과제
06	ESG 전환과 동남권 대응과제
07	2021년 상반기 동남권 경제 리뷰
08	수소경제의 미래와 동남권 대응과제
09	조선산업 동향과 지역경제 시사점
10	동남권 석유화학산업 현황 및 전망
11	2022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키워드로 되돌아본 2021년 동남권 경제

2022

01	코로나19 이후 동남권 수출 변화 분석
02	동남권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전망
03	동남권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발전과제
04	원자재 시장 동향과 지역경제 시사점
05	코로나19 이후 동남권 자영업 변화 특징
06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동남권 ICT산업 현황
07	2022년 상반기 동남권 경제 리뷰
08	코로나19 이후 동남권 금융시장 변화 분석
09	동남권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시사점
10	G2경제 현황과 지역경제 시사점
11	2023년 동남권 경제전망

E 이로운
S 세상을
G 그리다

BNK금융그룹은 ESG 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다음 세상을 그려가겠습니다!

BNK BNK 부산은행 BNK 경남은행 BNK 캐피탈 BNK 투자증권 BNK 저축은행
 BNK 자산운용 BNK 신용정보 BNK 시스템 BNK 벤처투자 BNK 씨농구단

BNK BNK금융지주

제2022-11호

신고번호 부산남, 라00006

신고일자 2016년 10월 14일

발행인 김지완

편집인 김성주

발행처 BNK금융지주 (www.bnkfg.com)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문현동)

연락처 Tel : 051-620-3180 Fax : 051-620-3199

인쇄 애드벤처

2022년 11월 30일 발행

BNK금융지주 홈페이지에서 BNK경제인사이트 뿐만 아니라
 경제 및 금융분야의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